

빛나는 섬, 파란 그리움



다리로 연결된 섬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순대속 같은 세상살이를 핑계로/ 퇴근 길이면 술집으로 향한다./ 우리는 늘 하나라고 건배를 하면서도/ 등 기댔 벽조차 없다는 생각으로/ 나는 술잔에 떠 있는 한 개의 섬이다./ 술 취해 돌아서는 내 그림자/ 그대 또한 한개 섬이다.” (신배승의 '섬')

“순대속 같은 세상살이” 살다보면 문득, 외로움이 밀려들 때가 있다. 어디에도 기댈 곳 없다는 허허로움에 몸서리칠 때도 있다.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아도 저마다 섬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술잔에 떠 있는 한 개의 섬”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런 날에는 섬으로 가자. 그런 날에는 섬을 꿈꾸자. 어깨와 어깨를 마주하고, 등과 등을 맞대 온기가 흐르는 섬으로 떠나자. 그곳에서 혼자만의 섬이 아닌, 비로소 함께 함으로 빛나는 너와 나의 섬이 되어 보자.

목포 앞바다에 다이아몬드처럼 박힌 4개의 섬이 있다. 자은, 암태, 팔금, 안좌. 네 개의 섬은 다리로 연결돼 있다. “따로 또 같이” 그렇게 다정다정해 바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네 개의 섬은 신안이 자랑하는 보배다. 천사(1004개)의 섬 가운데 허리춤에 해당한다. 어느 섬이든 압해도 송공선착장에서 철부선을 타면 30분 이내에 도착한다. 혹자는 이곳을 신안의 '골드벨트'라고도 하고 '다이아몬드 제도'라고도 한다.

주말엔 신안의 '다이아몬드 제도'로 떠나보자. 다리로 어깨동무를 한 네 개의 섬들을 따라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자.

자은도의 풍경은 수려하다. 미인의 섬섬옥수가 저절로 떠오른다. 두봉산(364m)에 오르면 섬을 에두른 나긋한 선이 들어온다. 그 선들을 따라 이어진 해수욕장은 그림처럼 아름답다. 이곳엔 해수욕장만 무려 64개나 있다.

분계 해수욕장은 자은도에서 가장 수려한 공간이다. 완만한 해안을 따라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 바다, 하늘, 모래밭이 어울려 빛어내는 수려함은 눈부시게 푸르다. 2010년 시민단체 생명의 숲이 '보전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암태도는 역사의 섬이다. 항일 농민항쟁의 의기가 오롯이 서려 있다. 한때 인구가 1만명을 넘었던 적도 있고 “사람다운 사람은 다 암태에 산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토지가 비옥하고 사람살이의 근본이 바로 갖춰졌다는 의미로 들린다.

암태도에서 불거리는 '노두'다. 노두는 썰물 때 드러나는 2.5km의 징검다리. 암태도에 딸린 추포도로 가는

자은 분계리 분계해

길목에 있다. 길이 600m에 달하는 백사장만 더없이 부드럽고 깨끗하다.

팔금도는 네 개의 섬 가운데 가장 작다. 빛바랜 흑백사진의 느낌이 살포시 묻어난다. 정지해버린 듯한 시간 너머로 사람살이의 인정과 순박이 넘쳐흐른다.

팔금도는 꾸지뽕(산뽕) 밭(17ha)이 많다. 꾸지뽕은 가시가 길고 암수그루가 따로 있는 뽕나무로 잎, 열매, 뿌리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대하도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다.

네 개의 섬 가운데, 별 중의 별은 안좌도다. '한국의 피카소' 김환기(1913~1974)는 이곳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냈다. 김환기는 한국적 정서를 추상화한 화가다. 김환기의 그림에 드리워진 푸른빛은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이 선물한 감성적 색채다.

1969년 미국 뉴욕에 거주하던 김환기는 김광섭의 시 '저녁에'를 보고 가슴이 먹먹해진다.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을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김광섭의 '저녁에')

안좌도의 풍광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선 '천사의 다리'를 걸어야 한다. 안좌도에서 박지도와 반월도로 이어진 나무다리를 건너면 갯벌의 생명력과 섬이 감추고 있는 속살을 눈뜨시 볼 수 있다.

바다 위를 가른 목교는 몽환적이며 이색적이다. 세상의 번다한 고민은 잠시 내려놓자. 이 천사의 다리를 건너면 저편 너머 낙원에 이를지도 모른다.

▲가는 길=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IC를 빠져나와 압해대교를 지나 송공 선착장으로 가면 된다. 한 시간 간격으로 철부선이 있다. 도선료는 승용차 기준 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진:신안군청 제공)

- 그림같은 해수욕장이 64개 '자은도'
- 항일 농민항쟁 의기 서린 '암태도'
- 순수한 자연 넘치는 인정 '팔금도'
- '한국의 피카소' 김환기 고향 '안좌도'



자은 백길 해수욕장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